

산불 없는 푸른 고성 만들기 총력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추진 ... 산불감시탑 시설환경 개선

고성군은 산불방지를 위한 현장중심의 예방활동과 함께 산불방지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에도 전 행정력을 투입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주요 문화재나 목조건축물 주변 산림에 대해 산불확산 저지 이격공간과 완충구역을 조성해 산불로부터 주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4일부터 23일까지 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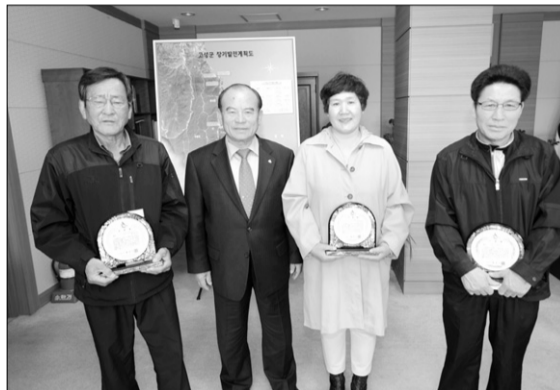
읍 교동리 건봉사 극락암 주변 2ha에 849만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부 인화물질제거, 낙엽류 긁기, 상층 연소물질 제거 등을 실시한다.

또한 6일부터 25일까지는 간성을 금수리에 있는 고성산 산불감시카메라의 전선이 외부로 노출돼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단선 위험과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300만원을 들여 80m의 전선 매설작업과 분전함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8일부터 27일까지 600만원을 투입해 경량철골조로 설치된 인흥리 산불감시탑의 계단보수, 바닥재 교체수리 및 벽체작업, 창문보수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푸른 고성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은 지난 11일 군수집무실에서 탄소포인트제 우수자 3명에게 기념패와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전기도 아끼고 상품권도 받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상품권 지급

고성군은 지난해 지구온난화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 주민 가운데 전기 절약 실적에 있는 550가구에 인센티브 상금으로 총 1천 841만1천원의 고성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다.

탄소포인트 산정방법은 가입자의 2008년 및 2009년 월평균 전기사용량과 지난해 월평균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량을 포인트로 환산했다. 42kwh의 절감량을 1포인트를 환산해 포인트당 3원을 적용했다.

지난해 추진 결과 550가구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절감한 주민은 간성을 장신리에 거주하는 이석씨(53세)로, 최우수 기념패와 171만5천원의 고성사랑상품권을 받았다.

2위인 우수상은 죽왕면 문암리 김연희(48세)가 차지해 기념패와 98만6천원의 상품권을, 3위인 장려상은 간성을 봉호리 정내석(74세)가 차지해 기념패와 65만8천원의 상품권을 받았다.

고성군은 올해부터는 탄소포인트제를 주택용(가정용)에서 일반용까지 확대해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은 한국환경공단(<http://cpoint.or.kr>) 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마을 이장과 읍면 총무팀을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인센티브 지급은 상반기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상반기는 오는 9월에, 내년 2월에 지급한다.

최광호 기자

군장병에게 환경의 소중함 알려

고성군 환경보호과 102여단 기보대대서 환경의식교육

고성군 환경보호과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02여단 기보대대 대강당에서 군장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부대 환경의식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군장병들로 하여금 지구환경문제, 인간과 환경의 상호 관련성,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의식 등 환경의식 고취 및 친환경적 생활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재단법인 한국품질재단 상임심사위원인 강태농 강사가 '지구환경문제와 저탄소 녹색경영'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강태농 강사는 기후변화 현상과 환경경영, 저탄소녹색성장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지구환경



지난 12일 열린 102 여단 기보대대 장병 대상 환경의식교육 모습.

의 심각성,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재현 기보대 대장(중령)은 "우리 고성군은 환경 보존율이 가

장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군장병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시 손실액은?

면허 정지·취소시 '정직' ...천여만원 손실

속초해경 음주예방 교육

속초해경양경찰서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1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ZERO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손실액을 산출해 눈길을 끌었다.

해양경찰청 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1회시 중징계(정직, 강등 또는 해임, 해임 또는 파면)인 '정직' 처분이 내려지며, 동승자와 지휘관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경사 15호봉, 연봉 5천만원 기준)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최소 1천266만5천원(봉급 2/3감액, 각종수당 감액 등)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또 승급제한, 근무평정시 감점, 성과급 지급배제, 비연고지 전보조치 등 개인 신상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속초해경은 '음주운전 ZERO화 캠페인'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매주 음주운전 취약 요일에 '음주운전 절대금지' 안내 메시지를 문자로 전송하는 등 음주운전 ZERO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최광호 기자

5월 2~4일 재난안전한국훈련 실시

고성군은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2011 재난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재난안전한국훈련은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등 재난관리기관과 국민이 참여해 범국

가적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 종합훈련이다.

첫날인 2일에는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며, 4일 오전 11시에는 거진항 일원에서 지진해일 훈련을 할 예정이다.

최광호 기자